

# 김제 용지 축사 밀집지역 타당성 용역비 2억 확보

### 김중희 의원, “기재부 심의단계서 확정 새만금 수질개선 결정적 계기 마련해”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제 용지 축사(가금)밀집지역의 현업 축사 매입이 제기된 가운데 축사 매입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됐다.

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별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사 매입의 중차대상은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 결과 기축분뇨가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용지 축사 밀집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확보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과 새만금 수질개선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국회심의 단계에서 확보된 예산을 지키고 증액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소재 기술 국산화 국가과제... 대학, 적극적 역할 해주길”

### 문 대통령,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서 역할론 강조 “지역 혁신 거점 역할에 적극... 융합형 인재양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요즘 기술의 국산화와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기술 개발을 위한 국립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연구개발(R&D) 등 또는 지역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어 달라. 이미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들이 지역혁신의 거점역할들을 하고 있다”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실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확실히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저하게 적다. 그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더 관심 가져달라. 시간강사들의 고용유지에 대해 함께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이 더해지는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든다.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것이 미래융합형 연구이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문 간 또는 전공 간 심지어는 문과 이과, 큰 영역에서 벽도 좀 무너뜨린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과별 전공별 칸막이를 더 낮춰야만 융합형 연구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대안정치, 제3세대 신당 창당 본격 추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가 조직 구성 등 진용을 갖추고 제3세대 구축을 위한 대안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안정치는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추진단, 대변인단 등 각 조직의 장을 선임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가 겸임기로 했고 정책추진단장은 윤영일 의원, 대변인단은 수석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창당준비위원회는 외부에서 창당 발기인과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모셔야 해서 내외부 활동이 모두 가능한 유성엽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정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포용적 성장과 평화경제를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정책 페스티벌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민주 군산지역위, 정책페스티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는 ‘포용적 성장과 평화경제를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정책 페스티벌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치원 영유아 급식비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청소년 교육,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노인 치매 안심 도시 만들기, 농지 구조 개선, 군산항 활성화 방안,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7일 전북도당 토론회를 거쳐 9월 20일 중앙당 정책페스티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민 기자

진을 기대하고 현실화 시키겠다는 당원 동지들의 열기와 열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토론 현장이었다”며 “군산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바람이 담긴 토론회 결과물을 중앙당 정책에 또는 향후 총선 공약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민주, 조국·문 정부 사수 ‘총력 대응’

### 단일대오로 ‘철통 엄호’ 지속... 청문회 TF도 가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악화되는 여론 속에서 조 정면돌파 기조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국 절대 사수’에 당력을 집중했다.

정·특혜 의혹을 ‘팩트 없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당내 일각에서는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 의식을 공유하며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대응하기 위한 TF도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청문회 대책 TF를 가동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도 방어막 성격의 TF를 만들어 조 후보자에 대한 총력 엄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것이 미래융합형 연구이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문 간 또는 전공 간 심지어는 문과 이과, 큰 영역에서 벽도 좀 무너뜨린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이 연이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를 향한 전방위적 공세의 배경에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여기서 밀리면 다음이 없다”,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 등 당의 단일대오와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으면서 당이 일치 단결해 총력 대응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